

#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도덕성 논란

11년간 '세차장 임대' 세금 안 내…3년전 납부

공무원 겸직 금지법 피하려 신고 미룬 의혹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994년부터 11년 동안 세차장 임대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어 후보자는 2005년 1월에야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 후보자는 이 기간에 부산경찰청 차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요직을 역임한 바 있어서 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함께 도덕성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

24일 경찰청이 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부산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 후보자는 지난 1987년 자신의 형으로부터 경남 창원시 신일동 토지를 매입한 뒤 1994년 세차장 건물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어 후보자는 세차장 임대료로 199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매달 40만 원의 임대료(총 5천280만 원)를 받아왔고, 2005년 12월 때각했다.

어 후보자는 "작은 금액의 임대 수

할 때까지 매달 65만 원(총 715만 원) 씩 임대수입을 거뒀다.

어 후보자는 그러나 1994년부터 2005년 1월이 될 때까지 세차장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어 후보자는 부산경찰청장으

로 근무하던 2005년에야 세차장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했으며 그해 1월 뒤늦게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어 후보자는 2005년 12월까지 임대업을 계속하다 당시 임차인에게 세차장을 2억8800만 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64조)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소득신고 등을 숨긴 것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어 후보자는 "작은 금액의 임대 수

입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2005년 1월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결과 납세 대상이 된다고 해 자신하고 있다"며 "조세시효를 넘기지 않은 2000년 이후 분에 대해 관련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인 이른바 '취지지원선진화 방안'에 앞장서 기자실 폐쇄를 추진한 것도 논란이다.

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12일 경찰 9명과 전·외경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을 폐쇄했다. 이후 어 후보자는 기자실 폐쇄에 항의하는 기자들의 면담을 거부하다 대선이 끝난 24일 갑자기 기자들에게 오찬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 "제안 받은적 없다니까..."

대통령실장 거론 유우익 교수 명백한 고사듯 안 밝히고 여론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대통령실장 직에 대해 명백한 고사 의사로 밝히지 않아 여론을 낳았다.

24일 정용화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광주에 온 유 교수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일할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많다"며 "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사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세운 개인 싱크탱크 국제정책연구원(GSI)의 원장으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맡그림을 그린 핵심 브레인이다.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한 '물길이 통하면 인심이 통한다'는 카피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공약 비전의 개념을 잡았다. /김자기자 dok2000@/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나라 공천심사위 구성

안강민 위원장 당내·외 5대5

한나라당은 24일 '4·9 총선' 출마자를 결정할 공천심사위(공심위) 위원장에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모두 11명의 공심위원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5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곧바로 강재설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심위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공심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진 뒤 내주 초부터 공천신청을 받으면서 공천심사를 제외하면 당내 인사 5명, 외부 인사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 뉴욕필 평양 공연 전세계 생중계

내달 26일 미·북 국가 등 연주

다음달 26일 열리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뉴욕필은 23일(현지시간) 동평양극장에서 이뤄질 평양 공연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면서 현지 중계는 유럽방송연합(EBU)의 협조 아래 자사와 MBC, 유로아트, 인터내셔널 ARTE프랑스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필은 미국 내 중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평양 공연 프로그램은 미국과 북한 국가, 거주인의

'파리의 미국인', 드보르자크의 '신세계에서',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3막 서곡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뉴욕필 단원 가운데 부악장인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미셸김(김미경)씨가 눈길을 끈다. 2001년 뉴욕필에 입단한 김씨 조부모는 북한 출신이라 평양 방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 뉴욕필은 다음달 25일 북한방문을 시작, 26일 평양공연을 펼친 뒤 28일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자유신당 광주시당 창당

자유신당(가칭) 광주시당 창당대회가 24일 광주시 광천동 경복궁에 당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총재는 이날 창당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양심·개방을 추구하는 자유신당은 4월 총선에서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혁명적인 정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비자금 의혹 미술품 28점 확인 작업

### 삼성 특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소환 통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원 특별검사팀은 24일 에버랜드 창고에 보관 중인 미술품 가운데 비자금으로 구입한 의혹이 드는 작품 일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미술품이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주장한 미술품을 구입한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정석 특검보는 "김 변호사가 제공한 목록이 (삼성측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미술품 30점을 구입했으며, 에버랜드 창고 등에 미술품들이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었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창고에서 존재가 확인된 수천 점의 미술품 가운데

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미술품 구입에 관련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나달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홍 대표가 조만간 출석하는 대로 에버랜드 창고에서 확인한 일부 '의심 미술품'이 자신이 2002~2003년 미국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구입한 미술품 30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변호사가 주장한 미술품 리스트에 기재된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BBK 특검, 김경준·이진영씨 소환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의도 흙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김경준 전 BBK 헌장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이진영씨 말만 듣고 조사한 것이 다시 조사되길 희망한다. 계좌주적만 하지 말고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진영씨는 당선인이 시장으로 물러나 김씨와 LKe뱅크를 동업할 때에도 비서로 일했던 핵심

즉근 인사 중 하나다. LKe뱅크 운영에도 관여해 내부 사정에 밝았던 이씨는 검찰의 BBK 수사 때도 참고인으로 나가, 김씨의 횡령이 당선인과는 관련이 없음을 떠벌리침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첫 조사 때는 BBK 수사 검사들의 회의 의혹을 수사하는 4팀이 주로 김씨를 조사했지만 이날은

BBK의 의혹을 수사하는 1팀과 다스 및 도곡동 광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는 2팀도 김씨를 상대로 차례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팀은 수사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 장비가 갖춰진 조사실에서 김씨의 진술을 받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려고 객관적 증거도 있을 테니 당장 수사검사를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며 내용이 겸증되지 않으면 소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금당부동산

☎ 223-7400 웹 016-632-5659  
우편: 충정로 5가 741 코너 2층

### 사찰(절) 및 사찰부지

◎남구 월산동 문화방송국 옆, 광주시내 전체를 조망하며, 무동산이 면경으로 보이고 주변은 APT 6천세대 이상을 재개발하는 최상의 요지.

대지 501평 공시지가 5억5500만원  
매도 3억 조정가능

◎광산구 하남 월곡동 부근 산정동소재 3층점. 주변은 아파트 집단지와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도심 포교당이나 여수님 운행 사찰로 적합.

대지 61평 공평 87평 담보 1억천  
매도 3억 조정가능

### 분양권 매매 운암동 벽산블루밍

◎107동 46평형(기본대층)로  
일층 타워형 남향 전망최고  
총분양가 2억4천7백만원 계약금:  
14,850,000원부분 매 2억4천9백만원

사건번호	신 청 인	목 빠
2007카공 666	남 강 광주 남구 주월동 448-9	아승아름 번호: 자가02995117 금액: 금43,000,000원 발행일: 2007년 11월 30일 발행처: 광주광역시 비행인: 남 강 지사증명일: 2008년 1월 31일 지급처: 광주광역시
2007카공 687	김대미 광주 광산구 송천1동 761-21	자기인수표 번호: 가-17946042-056 금액: 각금1,000,000원(15회) 발행일: 2007년 12월 24일 발행인: 김 대미 지급처: 송정농협 원동지점 최후소유인: 김대미
2008카공 1	김강순 광주 광산구 신도동 1594	자기인수표 번호: 162387448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7년 12월 24일 지급처: 광주광역시 신도동 면허소 최후소유인: 김강순
2008카공 2	고정연 광주 북구 용봉동 850	자기인수표 번호: 가-143656383-45 금액: 각금1,000,000원(13회) 발행일: 2007년 12월 26일 발행인: 광주광역시 고정연 최후소유인: 고정연
2008카공 3	김기수 광주 광산구 소촌동 5-8 404호	자기인수표 번호: 가-165223676-78 금액: 각금1,00,000원(3회) 발행일: 2007년 12월 14일 발행인: 우리은행 광주지점 최후소유인: 김기수
2008카공 5	정화주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6-5	기기수표 번호: 이가02389008, 이가02389008 금액: 미기재 발행일: 미기재 발행처: 광주광역시 정화주
2008카공 6	한경숙 광주 광산동 두동아파트 203동 1208호	자기인수표 번호: 가-165568886, 가-165568886, 가-165568890 금액: 각금1,000,000원(3회) 발행일: 2007년 11월 12일 16일 발행인: 한경숙 최후소유인: 한경숙
2008카공 7	윤수라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문화아파트 2008년 1월 10일 11호	자기인수표 번호: 68778488-492 금액: 각금1,000,000원(2회) 발행일: 미기재 지급처: 남부주부증권 방남지점 최후소유인: 윤수라
2008카공 8	김경준 광주 오창동 102동	자기인수표 번호: 07279634-643 금액: 각금1,00,000원(10회) 발행일: 2007년 12월 28일 발행인: 김경준 지급처: 광주은행 중소기업센터 최후소유인: 김경준
2008카공 9	김경준 광주 오창동 102동	자기인수표 번호: 08802245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8년 1월 15일 발행인: 김경준 최후소유인: 김경준
2008카공 10	박경숙 광주 남구 산수동 호남아파트 비동 602호	자기인수표 번호: 가-165415264-69 금액: 각금1,00,000원(6회) 발행일: 2007년 12월 27일 발행인: 박경숙 지급처: 호남농협화재 최후소유인: 박경숙
2008카공 11	최민주 광주 북구 월봉동 887-97	자기인수표 번호: 81196356, 81196356 금액: 각금1,000,000원(2회) 발행일: 2007년 12월 5일 발행인: 최민주 지급처: 광주은행 최후소유인: 최민주
2008카공 12	이충희 광주 서구 이침동 124-20	자기인수표 번호: 0813147318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8년 1월 2일 발행인: 이충희 지급처: 광주은행 최후소유인: 이충희
2008카공 13	신봉숙 광주 운동동 425-55	자기인수표 번호: 06458751-752 금액: